# 日호류지 금당벽화, 27년 만에 밖으로

## 7세기 고대 불교회화 12장
## 예약한 5백명에 원본 공개

박영빈 객원기자


1949년 화재이후 수장고에 보관중인 호류지 금당벽화 원본.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607년 창건돼 고대불교사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는 호류지(法隆寺). 호류지의 중심법당인 금당의 벽화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담징 스님이 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1949년 화재로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그 후 수장고에서 엄중히 보관되던 벽화가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11월 9일 일본 'NHK 뉴스',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27년만에 공개되는 벽화의 소식을 특별보도했다.

일본 나라현에 소재한 호류지 금당 벽화는, 금당 내벽 12곳에 그려진 불보살과 비천도 등의 불화로 7세기에 그려진 고대 불교회화다. 1949년 원인불명의 화재로 금당이 소실되기 전까진 일본 최고(最古)의 벽화이자 한국의 석굴암, 중국의 윈강석굴과 함께 동양 3대 불교미술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호류지 측은 "벽화 보존을 위해 대대로 주의를 기울여 왔다. 1939년에는 보존을 위해 금당을 수리하기도 했다. 2차대전 등 여러 위험에서도 지켜왔었던 소중한 성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로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벽화들은 여전히 중요문화재로 지정, 원래의 벽체에서 분리되어 수장고에 엄중히 보존돼왔다. 호류지 금당벽화의 소실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분리된 벽화원본들은 1994년 마지막으로 일반에 공개된 이래 비공개로 보관되어 왔다. 호류지는 개산조인 쇼토쿠태자(聖德太子)의 원적 1400주기를 기념하고, 문화재 보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벽화원본을 특별히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호류지 측은 이번 공개를 위해 6년 전부터 전문위원회를 발족해 논의를 거듭해 왔다고 전했다.

호류지 측은 "현재 벽화원본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보존처리를 거친 후 공개범위 등을 논의했다. 화재로 인해 원래의 선명한 채색은 없어졌지만, 남은 윤곽으로부터 과거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벽화의 보존 상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모사를 위해 화재 이전에 분리해 두었던 비천도들의 경우에는 원래의 색감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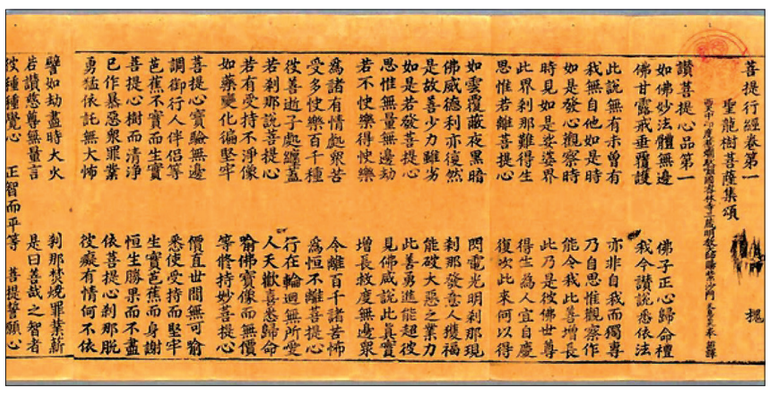
이번에 공개되는 벽화는 12장으로 높이 3.1미터, 폭 1.5미터~2.6미터다. 불보살 등이 그려진 부분들을 간추린 것이다. 현재 호류지와 위원회 측은 사전예약자들에 한해 1일 50명씩 열흘간 총 500명에게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예약자들은 그동안 호류지 문화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데 후원했던 후원자들 가운데서 신청을 받았다.

호류지 관장(管長) 후루야 쇼가쿠 스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해 주길 바란다. 비록 본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불보살님들의 모습은 여전히 뚜렷하다"며 많은 이들이 성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 주길 요청했다.

한정 공개는 11월 21일까지 진행됐고, 위원회에서는 이번의 공개를 참고로 향후 일반대중에 공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진행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밝혔다.

# 日, 세계기록유산에 불교문헌 등재 추진

## 대장경 · 입당구법승 자료
## 등재여부 2023년에 결정


도쿄의 죠조지에 소장된 삼대장의 일부. 경제 위에 도쿠가와 가문의 도장이 찍혀있다.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전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선정하는 세계기록유산에 불교사료가 추천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1월 10일 세계기록유산에 일본이 소장한 대장경과 입당구법승들의 자료를 추천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부터 UN산하의 교육 · 과학 · 문화기구인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국제문화유산으로,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있는 정보, 또는 그 매개물로 서적이나 문서, 편지 등을 비롯해 비디오나 음성 녹음자료도 인정된다. 현재 한국은 세계기록유산으로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을 비롯해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실록〉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의 세계기록 유산은 '정토종 대본산 조죠지 삼대장(浄土宗大本山增上寺三大藏)' 과 '치쇼대사 엔친 관계문서 전적(智証大師円珍關係文書典籍)' 으로, 두 유산 모두 불교사료다. 문부과학성은 "세계기록유산 신규등재를 위해 국내에서 11건의 신청을 받았고, 이중 2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사유로는 "죠조지 삼대장은 현대 불교학 연구의 기초가 되었으며, 한자문화와 인쇄문화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료다. 또한 엔친 관계문서는 당시 국제 문화교류와 시대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라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11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하고, 두 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가부는 오는 2023년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토종과 조죠지 측이 신청한 '죠조지 삼대장' 은 목판으로 인쇄된 대장경들로 송, 원, 고려판의 세 판본의 대장경들을 집대성 한 1만 2000점의 불경과 논서들이다. 이 대장경들은 17세기에 조죠지의 대시주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의 사찰들에서 수집한 대장경들을 정리하여 공양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이 삼대장은 현재 국제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한역대장경인 '타이쇼 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 의 저본으로 활용된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가 높다.

죠조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본 사찰에서 소장중인 대장경들이 최종후보로 선출된 것을 기념하여, 대장경의 일부를 특별전시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 사문파(寺門派)의 총본산인 온죠지(園城寺)와 도쿄국립박물관이 함께 신청한 '치쵸대사 관계전적' 은 사문파의 종조이자 입당팔가(入唐八家)로 불리는 엔친(円珍, 814-891)이 당에서 유학하던 당시 발급받은 통행허가서를 비롯해, 당에서 가져온 여러 불경과 문서들이다. 현재 모두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당시 당의 법률이나 교통, 문화제도에 대한 귀중한 사료로 꼽히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 印부다가야서 까티나 가사 법회 봉행

## 코로나19 극복의지 표명


까티나 가사 법회에 참석한 스님의 행렬. 사진출처=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던 인도에서 2년 만에 까티나 가사법회가 봉행돼 화제다. 지난 11월 1일 인도의 유력 언론인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는 성도성지인 보드가야에서 열린 까티나 법회 소식을 전했다.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까티나 가사 법회가 2년 만에 재개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마하보디 대탑에서 중단되었던 연례행사 중 처음으로 재개된 이번 법회는 보드가야 관리위원회(BTMC)의 주최로 현재 보드가야에서 수행중인 300여 명의 인도 테라와다 비구스님들이 참석했다.

까티나 가사 법회는 테라와다 전통에서 하안거를 해제한 스님들께 재가자들이 가사와 일용품을 공양 올리는 법회다.

23일 이른 아침, BTMC 사무실에 모인 법회 운영위원들과 스님들은 먼저 보드가야 대탑의 본존인 석가모니불상에 가사 공양 올리고 예불을 올리는 것으로 법회를 시작했다. 이번 법회에는 영화 '스리 싯타르타 고타마' 에서 싯다르타 역할을 맡아 세계 불교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발리우드 배우 가간 말릭이 주요 게스트로 참석했다.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사찰에 머물고 있는 다른 불교 국가 승려들 또한 까티나 의식에 참석했다.

이번 까티나 가사 법회에서는 특히 계율을 잘 수지하여 안거를 지낸 상좌로 마노즈 스님이 선정, 승단을 대표하여 가사와 보시물을 받는 의식이 진행됐다.

이번 법회를 시발점으로 2021-2022 인도 관광시즌이 시작되었으며, 인도 정부도 11월 중으로 외국인 순례자들에 대한 관광비자를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BTMC는 까티나 법회에 이어 다시금 재개하는 연례행사 목록을 공개했다. 목록에 따르면 티베트 불교에서 주최하는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회인 닝마 뮌람이 11월에 봉행되며, 내년 3월에는 국제 삼장독송 대회 등이 포함돼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 80세 고승의 침묵, 미얀마에 평화선사

## 정치적 중립유지 발표 및 시민 위로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마하보디 먀잉 사야도 스님. 사진출처=뉴스18

지난 10월 26일 인도 영어 뉴스 '뉴스18' 은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 시민들을 위로하는 80세 고승의 모습을 전했다. 미얀마에서 출가자들은 최고의 도덕적 권위자로 여겨진다. 스님들은 종종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2007년과 2008년에 있었던 민주화 시위에는 언제나 스님들이 앞장섰으며 2007년도 시위는 스님들의 주황빛 가사색에서 따와 '샤프론 혁명' 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승가는 분열 상태다. 많은 대중스님들이 군부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는 가두시위에 동참하는 동안, 일부 저명한 스님들은 새로운 군정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스님의 등장이 미얀마 사회와 시민들에게 안식을 주고 있다. 사가잉 지역에 소재한 나이야담 사원에 주석 중인 마하보디 먀잉 사야도 스님은 오랫동안 산문을 나서지 않고 숲속에서 명상수행을 해온 고승으로 존경 받고 있다.

은둔하던 스님의 등장은 곧 큰 반향을 일으켰다. SNS 게시물 등으로 스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각지에서 스님을 뵙고 법문을 듣기 위해 순례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과 순례자들은 스님의 등장으로 군부와 반군간의 충돌이 격렬하던 사가잉에 평온이 찾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멀리 양곤에서 왔다는 한 불자는 "오는 동안의 안전이 걱정 되었지만 되려 평화로웠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